

매체 양식에 의한 고소설의 변이 양상 연구

〈조생원전〉, 〈구의산〉, 〈김씨열행록〉을 중심으로

신희경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고전문학 전공
jmmhee@hanamil.net

- I. 머리말
- II. 〈조생원전〉, 〈구의산〉, 〈김씨열행록〉의 관계
- III. 〈조생원전〉에서 〈구의산〉, 〈김씨열행록〉으로 변이함의 의의
- IV. 맺음말

I. 머리말

1900년대에 등장한 신소설은 그 출발부터 고소설과의 차별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고소설의 전통과는 단절된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더욱이 신소설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고소설이 새로운 소설의 발아를 위한 역할에 한정된다는 중심 논지를 가지고 있다.¹⁾ 이러한 논의들은 고소설의 전통이 신소설과 근대소설에 계승되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 소설사를 단절된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

그러나 신소설은 전 시기의 서사문법과 독서 경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신소설의 등장 시기가 개화기 혹은 전환기로 지칭되는 급격한 사회변화의 시기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화와 문학 향유의 토대가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어서 고소설과 신소설은 단절이나 대척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았다. 이는 1920년대, 1930년대까지도 많은 고소설이 발간되고 광범위하게 향유되었다는 사실²⁾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고소설과 신소설은 같은 시대에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신소설과 활자본 소설의 가치를 논의하는 기저에는 ‘근대’는 곧 ‘발전’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전대의 소설이 구시대적이며 전근대적이라고 부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는 인식의 변화에 따른 공동체의 적용 양태로 발전이 아닌 변화상이므로 단선적이고 단절적인 발전의 개념으로 소설사를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근대와 근대성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은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단절인가 계승인가의 논쟁이 일정 부분 해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연구자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근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남선과 임화에서 비롯된 소설사의 단절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은 지금까

1) 이러한 연구시각은 조동일과 송민호가 신소설과 고소설의 접점을 찾고 이의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변화하고 있다(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송민호, 『한국개화기소설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5). 이 연구들은 신소설과 고소설의 관계를 단절이 아니라 계승으로 바라보게 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들 역시 고소설과 신소설의 관계를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한 것이 아니라 고소설을 신소설의 발생과정상에서만 논의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권순공의 『활자본 고소설의 편목과 지향』(보고사, 2000)과 김성철의 『활자본 고소설의 존재 양태와 창작 방식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를 들 수 있다.

지 분야별로 나뉘어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미시적인 부분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소설 연구자의 시각으로 근대와 근대성의 개념을 단선적이거나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소설의 계승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근대’와 ‘발전’이라는 틀로 소설사를 인식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소설의 전통 계승을 확인하기 위해 고소설과 신소설이 공존하던 시대에 고소설이 어떠한 존재 양상을 보이는가에 주목하고 고소설의 변화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구작(舊作), 개작(改作), 신작(新作)의 형태로 모습을 바꾸는 고소설의 변이³⁾ 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고소설 전통의 계승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동일한 모티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사 구조와 제명, 매체를 각각 달리하는 <조생원전>, <구의산>, <김씨열행록>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조생원전>, <구의산>, <김씨열행록> 세 작품은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모티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각각 존재하는 매체가 다르다. <조생원전>은 자작·연대 미상의 필사본⁴⁾이며 <구의산>은 1911년에 《매일신보》에 연재된 신문소설⁵⁾이고 <김씨열행록>은 <대서두서(大鼠豆鼠)>와 합본되어 1919년 대창서원과 보급서관에서 간행⁶⁾한 활자본이다.

세 작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개별 작품론이며⁷⁾ 다른 하나는 작품들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중에서

3) 내용은 그대로 하되 활자나 편집 형태를 바꾼 경우, 내용의 일부를 바꾼 경우, 의고적인 고소설체로 새로 창작한 경우 등으로 구작·개작·신작 고소설이라고 한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94, 341-355쪽 참조). 이렇게 다양한 양상을 모두 아우르면서 연구의 초점과 출발을 고소설에 맞춘다는 의미로 이 글에서는 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4) <조생원전>은 필사본과 활자본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다른 두 작품과 모티프를 공유하는 필사본(<조생원전>)을 대상으로 삼는다.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모티프를 가진 <조생원전>은 필사본으로만 현존하는 유일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2』(지식산업사, 2001), 120-122쪽.

5) 후에 <구의산>은 단행본으로 발행되기는 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매체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매일신보》 연재본을 대상으로 한다. 본 논의는 “신문에 연재되는 신문소설은 소설로서의 독자성보다는 신문 일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대중문학연구회,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6, 10-11쪽)는 견해를 바탕으로 하였다.

6) 이후 1928년, 1947년, 1954년에 재발행되었다. 서혜은, 「이해조 <구의산>의 <조생원전> 개작 양상」, 『어문학』 113(2011a), 328쪽.

7) 김석봉, 「『구의산』 서사 구조의 성층화 양상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10호(2003), 91-117쪽; 서인석, 「조생원전(필사본)의 문학사적 성격」, 『국어국문학연구』 19(1991),

작품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두 작품씩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개작과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다.⁸⁾ 이러한 논의들은 <구의산> 형성과정에서 <조생원전>의 관련성, <조생원전>과 <김씨열행록>의 관계, <구의산>과 <김씨열행록>의 관계가 주를 이루며, 이러한 연구들은 서사 단락의 비교를 중심으로 텍스트 간의 선후 문제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텍스트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설화 모티프와 고소설 전통이 후대에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생원전>, <구의산>, <김씨열행록>의 세 작품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세 작품의 선후 문제도 최근에 규명⁹⁾되었을 만큼 세 작품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텍스트 대(對) 텍스트의 영향관계나 같고 다름의 문제를 고찰하는 것으로는 고소설 전통의 계승 문제를 규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다. 특히 영향관계나 수수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작품 외적인 실증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만 기존 연구는 작품 내적인 서사 구조를 비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기존 연구의 가장 큰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시각과 같은 텍스트 수수관계에 대한 고찰을 넘어 작품 출현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 시각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진행된 텍스트 내적 동인에 더해 존재 양식과 관련된 텍스트 외적 조건을 고찰하여 기존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연구 시각을 모색하고자 한다. 소설사에서 고소설은 신소설의 이전 양식임은 틀림없으며 개화기의 문학 접합점으로서 신소설과 활자본 고소설은 “있었던 사실을 재배치”¹⁰⁾한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어떻게 재배치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85-113쪽; 서혜은, 「〈조생원전〉의 이본 계열과 여성 독자층의 향유 의식」, 『한국고전 여성문학연구』 22(2011b), 133-162쪽; 이정은, 「〈김씨열행록〉 연구」, 『한민족어문학』 15(1988), 401-423쪽; 최윤식, 「〈金氏烈行錄〉 研究」, 『국어어문』 11(1990), 47-76쪽.

8) 김명식, 「〈김씨열행록〉과 〈구의산〉-고전소설 개작 양상」, 『한국문학연구』 8(1985), 207-225쪽; 김영권, 「‘첫날밤 신랑 모해 설화’의 소설화 연구: 〈조생원전〉, 〈김씨열행록〉, 〈사명당전〉, 〈구의산〉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서혜은, 앞의 논문(2011a), 327-357쪽; 성형석,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형 설화의 소설화 양상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안미을, 「〈조생원전〉의 후대적 변모-〈김씨열행록〉, 〈구의산〉과의 비교」,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2); 이윤경, 『계모형 고소설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전용문, 「〈조생원전〉과 〈김씨열행록〉의 상관성」, 『어문연구』 51(2006), 411-439쪽.

9) 서혜은, 위의 논문, 329쪽.

10)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소명출판, 2000), 24쪽.

작품의 같고 다름의 문제에서 나아가 재배치 작동의 기제를 매체¹¹⁾에서 찾고자 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매체는 일반적이고 사전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고전소설을 일반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을 가리킨다. 근대 시기의 고전소설 존재 형태인 필사본, 신문연재, 구활자본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이 연구는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를 모티프로 하는 필사본 〈조생원전〉이 각각의 매체가 가진 담론에 의해 신문소설 〈구의산〉, 활자본 〈김씨열행록〉으로 변이하였음을 밝히는 데 주 목적을 둔다.

II. 〈조생원전〉, 〈구의산〉, 〈김씨열행록〉의 관계

계모형 설화의 한 유형으로서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는 살해-누명-누명 벗기-출가-탐색-재회¹²⁾로 구성된다. 〈조생원전〉, 〈구의산〉, 〈김씨열행록〉은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신혼 첫날밤 계모에 의해 남편이 목이 잘려 살해된 후 억울한 누명을 쓴 신부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 후 출가한 시부를 찾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작품은 제목과 세부 구성이 모두 다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세 작품의 서사 단락을 비교하면 표1과 같다.¹³⁾

표1의 서사 단락을 바탕으로 볼 때 〈조생원전〉, 〈구의산〉, 〈김씨열행록〉은 ‘득남과 재취과정-아들에 대한 계모의 태도-첫날밤 아들 살해-범인 찾기-시부 출가-가족 상봉’이라는 서사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11) “매체란 어떤 작용을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체로 어떤 이미지나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이자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가공하는 특정한 형식이다”(매체철학연구회, 『매체철학의 이해』, 인간사랑, 2005, 51쪽). “문학은 이러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한다”(김동식, 『한국의 근대적 문학 개념의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21쪽). 이 글에서 매체는 이러한 논의들을 전제로 인쇄매체에 초점을 맞춘다.

12) 이윤경,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형 설화연구」, 『구비문학연구』 16(2003), 286쪽.

13) 세 작품의 단락비교는 서혜은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서혜은, 앞의 논문, 2011a, 332-333쪽). 서혜은의 서사 단락 비교는 세 작품이 가진 서사 구조의 차이와 독자적인 특성을 드러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표1- <조생원전>, <구의산>, <김씨열행록>의 서사 단락 비교

〈조생원전〉	〈구의산〉	〈김씨열행록〉
		① 관동에 사는 거부 장씨 형제가 오래도록 아들이 없자 동생이 아들 계천을 낳아 형에게 준다.
① 강원도 사는 조기순의 처가 아들 영을 낳고 세상을 떠난다.	② 서울 사는 서판서가 재취 소씨에게서 오복이를 얻으나 소씨와 사별한다.	② 계천이 장성하여 급제하고 연씨와 결혼하여 갑준을 낳는다. ③ 갑준이 10세 때 연씨와 사별한다.
② 조기순이 배씨를 후처로 들인다.	③ 서판서는 부상을 당해 치료하다가 만난 이동집을 부인으로 들인다.	④ 계천이 유씨를 후처로 들인다.
③ 후처 배씨는 아들 영을 구박한다.	① 서판서의 후취 이동집은 전실 아들인 오복이를 귀애한다. ¹⁴⁾	⑤ 유씨는 아들 병준을 낳고 계천이 갑준을 귀애하자 불안해한다.
④ 배씨의 구박에 영은 금강산으로 들어간다.		
⑤ 영이 장성하여 장씨와 혼인하고 첫날밤에 머리가 잘려 살해된다.	④ 오복이 김애중과 혼인하고 첫날밤에 머리가 잘려 살해된다.	⑥ 갑준이 김씨와 혼인하고 첫날밤에 머리가 잘려 살해된다.
⑥ 영의 부인 장씨가 배씨와 쇠작지의 소행임을 밝힌다.	⑤ 김애중이 남복을 하고 범인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난다. ⑥ 김애중은 서판서 집 근처에 기거하다가 범인이 칠성이라는 것을 알아낸다. ⑦ 김애중은 서판서에게 이동집이 칠성을 시켜 오복을 죽였다는 것을 밝힌다.	⑦ 김씨가 남복을 하고 범인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난다. ⑧ 김씨는 장시랑의 집 근처에 기거하다가 유씨가 범인인 것을 알아낸다. ⑨ 유씨의 범행이 밝혀지고 김씨는 누명을 벗는다.
⑦ 조기순이 배씨와 쇠작지, 배씨의 소생을 죽이고 집을 떠난다.	⑧ 이동집이 자기 소생을 죽인 후 옥에 갇히고 서판서는 집을 떠난다.	⑩ 장시랑은 유씨와 그 소생을 죽이고 집을 떠난다.
⑧ 장씨는 천행을 낳고 천행이 10세가 되자 조부를 찾아오라고 한다.	⑨ 김애중은 효손을 낳고 효손이 서판서를 찾으러 길을 떠난다.	⑪ 김씨가 해몽을 낳고 장시랑을 찾기 위해 옥매와 함께 남복을 하고 길을 떠난다.
⑨ 천행과 조기순이 상봉하여 집으로 돌아온다.	⑩ 서판서와 효손이 상봉하여 집으로 오다가 칠성을 발견하여 체포한다. ⑪ 칠성이 오복을 죽이지 않고 함께 일본으로 유학했음을 밝힌다.	⑫ 김씨가 장시랑과 상봉하여 집으로 돌아온다.

〈조생원전〉	〈구의산〉	〈김씨열행록〉
⑩ 장씨는 열녀의 칭호를 받고 집안이 번성하게 된다.	⑫ 서판서의 가족이 모두 상봉하고 칠성을 위해 집을 마련해준다.	
		⑬ 김씨는 장시랑에게 과부 화씨를 후처로 맞게 한다. ⑭ 화씨가 김씨를 미워하여 죽은 유씨의 동생인 관동 태수와 함께 장시랑에게 김씨를 모함한다. ⑮ 옥매가 화씨를 독살하려고 했으나 잘못하여 장시랑이 죽는다. ⑯ 태수가 김씨와 옥매를 가두자 옥매가 동생을 변장시킨 후 상경하여 승문고로 진정사를 올린다. ⑰ 황제가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화씨는 교살되고 태수는 파면된다. ⑱ 김씨 모자가 황제를 알현하고 해룡은 공주와 결혼한다. ⑲ 김씨부인이 죽고 해룡이 장례를 치른다.

〈조생원전〉의 경우 ①-②는 득남과 부인 사별 그리고 재취과정이다. ③-④는 전처 아들에 대한 계모의 태도이며 ⑤는 첫날밤 전처 아들 살해이다. ⑥에는 며느리가 남편 살해의 누명을 쓰고 누명을 벗는 과정이 나타난다. ⑦은 시부의 출가, ⑧-⑩은 가족 상봉과 결말이다.

〈조생원전〉은 제목이 시아버지 조기순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사건의 중심인물은 조기순과 며느리 장씨이다. ①-⑦에서는 조기순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지만 ⑥-⑩은 며느리 장씨가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여성인 것에 더해 〈조생원전〉의 주된 갈등은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해결된다는 특징이 있다. 초반의 서사는 주로 계모인 배씨로 인한 갈등이 전개되다가 후반에는

14) 이 순서는 〈조생원전〉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구의산〉에서 이동집이 오복이를 귀애하는 ① 단락을 〈조생원전〉의 ③ 단락 항에 배치하였다.

며느리 장씨가 사건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구의산〉은 〈조생원전〉이 득남과 재취과정-아들에 대한 계모의 태도가 시간 순으로 전개되는 데 비해 표1에서 보는 것처럼 ① 아들에 대한 계모의 태도가 먼저 나타나고, ② 득남과 사별, ③ 재취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구의산〉이 가진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범인을 찾아 며느리가 누명을 벗는 과정이 ⑤-⑦인 것과 가족 상봉이 ⑩과 ⑩로 〈조생원전〉보다 확대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작품 제목인 〈구의산〉과 관련된 것으로 “구의산에 구름 싸이듯 혼 의심이 환연히 희석이 되어”¹⁵⁾라는 의미를 잘 나타내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들 살해의 사건 해결과 이에 얽힌 인물들의 행방이 〈조생원전〉보다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

〈구의산〉의 이러한 특징은 〈구의산〉이 〈조생원전〉을 개작한 것이라는 논의의 근거가 되어왔다. 서혜은은 판소리와 고전 소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해조가 〈옥중화〉, 〈강상련〉, 〈토의간〉과 같이 판소리를 개작한 소설을 《매일신보》에 연재하였다는 점¹⁶⁾을 들어 〈구의산〉의 형성에 이해조의 작가 의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구의산〉이 〈조생원전〉과 변별되는 지점, 즉 오복이 첫날밤에 살해된 것이 아니라 칠성과 도망하여 유학하였다는 “반전은 독자의 흥미를 부여하기 위한 이해조의 의도에 의한 것”¹⁷⁾이라고 하였다. 또한 함태영도 “오복의 생존은 이해조의 상상력의 산물인 동시에 이해조와 《매일신보》의 의도가 개입·관철될 수 있는 밑바탕”¹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 중에서 계모의 사주를 받은 종이 다른 사람의 목을 벤 후 신랑과 함께 도망하였다가 아들,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는 결말을 가진 각편이 4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¹⁹⁾ 이렇게 본다면 〈구의산〉에서 칠성이 부정한 남녀를 죽이고 그 남자와

15) 〈구의산〉, 《매일신보》, 1911년 9월 27일자.

16) 서혜은, 앞의 논문(2011a), 339-341쪽 참조.

17) 위의 논문, 343쪽.

18) 함태영, 『1910년대 『매일신보』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9), 75쪽.

19) 『구비문학대계 3-4』, 계모의 흥계를 밝혀낸 며느리, 866-878쪽; 『구비문학대계 5-2』, 서모의 마음, 620-629쪽; 『구비문학대계 6-7』, 오대독자 최독선, 442-448쪽; 『구비문학대계 8-9』, 계모의 만행, 1130-1137쪽. 정상진은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를 비극적 결말형, 중간형, 호종적 결말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들 설화는 호종적 결말형에 해당된다. 정상진, 「계모형 설화의 전승 및 서사 양식과 의미」, 『외대어문논집』 18(2003), 403쪽 참조.

오복의 머리를 바꿔치기 한 후 오복과 함께 일본 유학을 다녀온다는 설정은 〈조생원전〉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해조가 독창적으로 확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각편을 이해조가 접촉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생원전〉을 읽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구의산〉에 나타나는 서사의 확장이나 반전이 이해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 유형이 23편이며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²⁰⁾에서 〈구의산〉의 서사 구조는 설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구의산〉에 나타나는 오복의 도망은 설화를 활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도망이라는 삽화가 작가와 신문의 의도를 반영하여 유학이라는 설정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김씨열행록〉이 〈조생원전〉, 〈구의산〉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득남과 재취과정-아들에 대한 계모의 태도-첫날밤 아들 살해-범인 찾기-시부 출가-가족 상봉’ 구조가 작품의 일부 구조가 된다는 점이다. 〈김씨열행록〉은 ②-④ 득남과 재취과정, ⑤ 아들에 대한 계모의 태도, ⑥ 첫날밤 아들 살해, ⑦-⑨ 범인 찾기, ⑩-⑫의 가족 상봉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김씨열행록〉은 〈조생원전〉과 〈구의산〉이 남편 살해 사건이 해결되면서 끝나는 데 비해 이후 또 다른 계모의 모해로 인한 사건이 전개된다. 그리고 〈김씨열행록〉은 ①에서 보는 것처럼 두 작품에는 없는 아들의 출생을 둘러싼 사건과 인물이 첨가되어 있다.

이처럼 〈김씨열행록〉은 서사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는 특징을 가진다. 〈조생원전〉과 〈구의산〉에서 출가한 시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은 손자인 천행과 해룡이다. 이에 비해 〈김씨열행록〉에서는 며느리인 김씨가 시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⑩ 이후에서 전개되는 서사는 계모 갈등에서 나아가 고부 갈등이 부가되는 중첩성을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김씨열행록〉이라는 제명은 며느리 김씨를 위주로 한 갈등 및 갈등 해소와 궤를 함께한다.

〈조생원전〉이 필사본으로만 70종이 넘는 이본이 존재²¹⁾한다는 사실은

20) 한유진은 ‘첫날밤 목 잘린 신랑과 누명 쓴 신부’ 유형 설화가 『구비문학대계』에 실린 계모설화 가운데 가장 많은 각 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유진, 『첫날밤 목 잘린 신랑과 누명 쓴 신부’ 유형 설화에 나타난 갈등 구조와 전승 체계』, 『구비문학연구』 37(2013), 148쪽.

21)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 목록』(집문당, 1999), 658-660쪽 참조.

〈조생원전〉이 독자들에게 인기 있는 작품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구의산〉과 〈김씨열행록〉은 〈조생원전〉이 가진 이러한 대중성을 바탕으로 하여 〈조생원전〉이 가진 서사 구조를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구의산〉은 살인 사건의 발생과 해결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건의 반전과 시간을 역행하는 서술방법으로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반봉건, 개화의식 고취라는 신소설이 가지는 특징을 반영함으로써 〈조생원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이하고 있다. 〈김씨열행록〉은 〈조생원전〉, 〈구의산〉이 가지고 있는 서사 구조에 고부 갈등으로 인한 사건의 발생과 해결이라는 다른 구조를 첨가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계모 갈등에 더해 고부 갈등을 접목함으로써 며느리 김씨를 중심으로 하면서 〈조생원전〉과 〈구의산〉보다 더 여성 중심적이고 통속적인 작품으로 변이한 것을 알 수 있다.

Ⅲ. 〈조생원전〉에서 〈구의산〉, 〈김씨열행록〉으로 변이함의 의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의산〉과 〈김씨열행록〉은 〈조생원전〉이 가진 서사 구조를 공유하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생원전〉은 연대 미상의 필사본으로 19세기부터 시작하여 1920년대에도 출현²²⁾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의산〉은 1911년 6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으며 〈김씨열행록〉은 1919년에 대창서원에서 발행한 활자본 소설이다.

출현 시기로 보아 세 작품은 향유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유사한 작품이 제명을 달리하여 다른 매체를 통해 출현하였다는 점이다. 같은 서사 구조를 공유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각의 매체가 가진 특징 때문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유사한 삽화들이 각각의 매체를 통해 어떻게 다르게 구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 서혜은, 앞의 논문(2011b), 137-140쪽 참조.

1. 신문소설 〈구의산〉-근대적 합리성과 국가주의의 반영

대표적인 근대 매체로서 신문은 근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대중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공론화하는 도구로서 기능하였다. 신문이 가지는 본래의 기능은 사실의 보도와 정보의 전달이다. 그런데 1900년대의 신문에는 사실과 정보뿐 아니라 소문도 신문 기사로 편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신문이 소문을 체계적으로 포괄하면서 소문이 가지고 있는 공론 형성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²³⁾ 이렇게 본다면 이 시기에 인식된 사실은 객관적 실재라기보다는 ‘사실로 해석된 경험으로 공유의 가치와 존재의 가능성 자체²⁴⁾로 볼 수 있다.

〈구의산〉의 서사는 ‘첫날밤 목이 잘려 살해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생원전〉과 차이를 보인다. 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의산〉이 〈조생원전〉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며느리 김애중이 범인을 찾는 과정과 가족이 결합하는 과정에 있다. 그중에서 범인을 찾는 과정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조생원전〉에서 범인은 인간적인 능력 밖의 방법으로 해결된다. 우연히 며느리가 남편을 살해한 쇠작지의 양어머니 집에 머무르고 주야로 축원하다가 남편이 꿈에 나타나 머리가 있는 곳을 알려줌으로써 자신의 누명을 벗는 등 현몽이나 초현실적 사건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구의산〉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실증적인 방법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⑥에서 애중은 의도적으로 서판서의 집과 가까운 노파의 집에 기거하면서 남편 오복의 성장과정, 서판서 집안의 정황, 칠성의 행방 등을 수집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칠성 어미에게 칠성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게 한다. 많은 단서들 가운데서 특이한 사실을 잡아내기 위해 실증적 개연성이 개입되고 이를 조직화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다. 현실 가능성을 중시하는 이러한 정황은 과학적 합리성과 함께 개인 이성의 역할이 확대되어 〈조생원전〉에 나타난 동일한 사건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실로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3) 김동식, 「신소설에 등장하는 죽음의 양상-소문과 꿈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 연구』 11(2002), 65-66쪽 참조.

24) 권보드래, 앞의 책(2000), 239쪽.

그리고 〈구의산〉은 범죄자의 처분에 재판과정을 자세히 서술함으로써 개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살인자에 대한 법적 조항과 처벌은 근대 이전에도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조생원진〉에서는 법 절차에 의해 죄인을 처벌하지 않고 배씨를 조기순이 직접 처단한다. 하지만 〈구의산〉에서는 법정에서 이동집의 죄를 추궁하는 과정이나 칠성을 심문하는 과정 등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죄에 대한 처분을 한다. 이처럼 〈구의산〉에서 서판서가 이동집을 직접 처분하지 않고 관아에 넘기면서 법적 절차가 드러나는 것은 경험적 현실을 중시하는 사실성을 반영하는 것이다.²⁵⁾

신문은 지배자들이 대중 사회를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구의산〉이 연재된 《매일신보》는 강제병합 이후 총독부 기관지가 되는데 《매일신보》를 통해 일제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동화정책과 문명화론의 지배논리를 유포하였다.²⁶⁾

日本이 強하면 我國도 強하고 我國이 弱하면 日本도 弱할 것은 一家 内に 兄則 飽 飢며 弟則 飢 飢 理는 萬無타 飢지니 可히 憂樂을 同하고 休戚을 同하여 東洋의 安寧秩 序를 共享할 것은 我兩國間에 共同企圖할 지라²⁷⁾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가의 개념을 형제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학(小學) 형제편』의 “兄無衣服, 弟必獻之, 弟無飲食, 兄必與之”와 동떨어 있다는 점에서 근대 담론으로서 국가와 민족, 개인의 문제가 유교적인 가족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²⁸⁾

25) 근대적 합리성과 가능한 실재로서의 사실성이 〈구의산〉을 비롯한 신소설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소설이 보여주는 사건의 극적 해결이나 우연성의 남발은 작품 미학적 측면에서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대 소설인 〈조생원진〉에 비해 근대 담론으로서 합리성과 사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26) 《매일신보》의 존재 이유는 일제의 식민담론 유포에 있었다. 이희정,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매일신보』』(소명출판, 2008), 32쪽.

27) 「同化의 主意」, 《매일신보》, 1910년 8월 30일자.

28) 이 시기 소설에 충·효로 대표되는 전근대적 규범으로서의 유교 덕목이 근대 담론과 착종되는 현상이 드러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신소설 연구자들이 밝힌 바이다. 이에 대해 최기숙은 “전통과 근대의 양자를 고려한 가운데 양자가 만나는 과정상의 불일치성, 또는 부정교합을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거기에서 포착되는 ‘일그러진 근대성’ 자체가 서사적 근대의 역동적 현장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최기숙, 「전통과 근대의 부정교합, 표류하는 서사의 근대성」, 『고소설연구』 37, 2014, 85쪽)고 하였다.

〈구의산〉에서 보여주는 살인 사건을 둘러싼 가족의 이합에는 가족과 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구의산〉은 〈조생원전〉뿐 아니라 〈김씨열행록〉과 비교해볼 때도 가족의 완성에 유난히 관심을 보인다. 이를 위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결말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조생원전〉의 영과 〈김씨열행록〉의 갑준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구의산〉의 오복은 죽은 줄 알고 있었으나 칠성과 함께 유럽에서 유학한 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다. 〈조생원전〉과 〈김씨열행록〉은 며느리와 조손에 의해 조부가 가정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이는 초기 설정에서 보이는 가정의 완전한 복구는 아니다. 그러나 〈구의산〉에서는 서판서, 오복, 효손이 모두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정이 완전하게 복구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으로 인한 복구에 대한 관심은 〈조생원전〉과는 다른 삽화를 취택하고 변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식민지배 담론은 만세일계의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국가관을 기본 사상으로 하여 충과 효로 무장한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일제는 《매일신보》를 통해 교육의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특히 여성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천황의 국민이 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음을 선전한다.

朝鮮人이 日本人과 同化하기는 第一捷徑이 女子教育의 進歩發達호는디 在호며 [...] 婦女는 家庭의 主宰라 아동을 訓化호는디 一家의 空氣를 作成호는 絶大호 權威를 抱有호였으니²⁹⁾

여성은 가정교육을 통해 천황의 강대한 국민이 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구의산〉에서 서판서의 출가 이후 집안을 건사하며 효손을 양육하는 애중의 태도에서 나타난다.

에그 내가 아모리 설위도 참고 참아서 아모도록 죽지 말아야호갓다 비스속에 잇는것이 텃형으로 아들갓호면 식되 쓴어진 종수도 니을것이오 칠성늬를 잡아 원수도 마자갑홀터이다/호야 산란호 정신을 강작호야 가다듬고 먹기슬인 음식을 괴틀쓰고 먹으며 큰집대소스를 친히 간금호야 일용법절을 규모있게호고 상하로소를 인의로 부리니 뉘안이 심복하리로 [...] 고싱끗헤 락이오는것은 하늘리치에 당연호것이라

29) 「女子教育의 方計」, 《매일신보》, 1910년 9월 16일자.

그렇 더령 십삭이되야 김씨부인이 일기옥동을 순산하니 절쳐봉심으로 깃분 마음이 한량이 잇스리오미는 솔심어 덩즈슴기로/ 더것이 언제나 장성하야 흥한을 잡아 원슈를 갑고 조부를 차져 효양을 홀소 [...] 저희 어머니 김씨부인은 시〃로 훈계하기를/이익효 손아 아모도록 글을 잘읽어나 사름의 자식이 무식하면 물이나 소에 옷넉힌 일반이 아니라 늣이 한가지를 알거던 너는 열사가지를 알고 늣이 열사가지를 알거던 너는 빅가지를 알냐흐며 언어와 행동을 단정히 가져 늣의게 아비업는 후레즈식이라는 말을 듯게 말어라³⁰⁾

〈조생원전〉과 〈김씨열행록〉에서도 시부의 출가 이후 며느리가 유복자를 낳아 키우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구의산〉의 애증과 같이 집안을 건사하거나 자녀 양육에 대한 언급은 드러나지 않는다.³¹⁾ 이처럼 〈구의산〉은 가족의 해체와 이를 위한 여성의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기반이 되는 가정과 가정교육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배담론을 구체화하고 있다.

초기 신문소설에서 나타났던 애국 계몽 소설의 경직성이 완화되고 일제 통치가 본격화되면서 신문소설이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나 체제 선동보다 소설 자체의 흥미를 이용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구의산〉은 총독부의 식민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신문을 읽는 독자가 필요했고 이를 소설을 통해 확보³²⁾하려는 성격을 가진 작품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작가 이해조의 작가 의식, 문명개화에 대한 인식³³⁾ 등이 반영되어 〈조생원전〉과는 다른 면모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구의산〉은 신문이 표방하는 근대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총독부 기관지로서 〈매일신보〉가 가진 성격을 반영³⁴⁾하면서 〈조생원

30) 〈구의산〉, 《매일신보》, 1911년 8월 18-19일자.

31) 적막헌 빈 방안에 유복자를 뉘여노코 울면서 흐는 말이 아가 〃 〃 우지말아 네 아부님 네 어느나 도부님을 네 어느나 [...] 정화슈 지터노코 일연슴빅육십일에 밤마당 축원하니 명평한 하날일이 감동치 안이오리 어언 간에 천향의 아니 오록세 되여우나 천향을 다리고 항상 괴져 흐는 말이 네 아부님 죽은 일과 도부님 나가신 일과 성즈와 관향 글썽을 주세 〃 〃 일너쥬니 천향이 영민하야 일남청기흐는지라(〈조생원전〉, 박태상, 『국문학연습-조선조가정소설 연구』, 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1, 181쪽). 이하 〈조생원전〉, 〈김씨열행록〉 띄어쓰기 필자.

아히 일홈은 희룡이라호고 장증보옥긋치 귀중이 양륙호더니(〈김씨열행록〉, 동국대한국학연구소, 『활자본고전소설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76, 9쪽).

32) 함태영, 앞의 논문, 260-261쪽 참조.

33) 〈구의산〉을 논의하는 데에서 작가 이해조를 논의로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의산〉과 이해조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대신하고자 한다.

전)과 차이를 보인다. <구의산>이 가진 이러한 성격은 근대적 합리성이라는 시대 담론과 총독부 기관지로서의 《매일신보》가 가진 일제 국가주의 담론이 작품 안에서 개인화·일상화되어 <조생원전>과 차이를 보여주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2. 활자본 소설 <김씨열행록>-오락성과 상업성의 추구

활자본 소설(고소설)은 애국계몽기의 신문 서사물들이 일제의 출판 정책에 의해 제거되면서 나타났다. 새로운 매체에 전 시대의 형식을 접목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활자본 고소설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활자본 고소설들이 개작 혹은 신작의 형태로 1940년대까지도 향유되었다는 정황은 활자본 고소설이 상품으로서의 생명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활자본 소설은 1912년 8월 처음 출판될 때부터 신문 광고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상품성을 특징으로 한다. 활자본 소설의 상품성은 조선 후기 방각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화된 서적상을 통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생원전>과 <구의산>이 ‘득남과 재취과정-아들에 대한 계모의 태도-첫날밤 아들 살해-범인 찾기-시부 출가-가족 상봉’을 중심 서사로 하고 있는 데 비해 <김씨열행록>은 여기에 가장이 돌아온 후 며느리가 또 다른 계모에 의해 다시 고난을 겪는 부분이 부가되어 있다. 이처럼 <김씨열행록>이 <조생원전>과 <구의산>이 가진 서사 구조를 공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시아버지가 다시 재취하고 이로 인한 갈등을 첨가한 것은 문학성에 대한 폄하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상업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활자본 소설이 보여주는 흥미 위주의 오락성³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4) “《매일신보》 편집자들이 문필가들에게 요구한 것은 이념이나 체제의 홍보가 아니라 대중적 흥미의 제고”(김영민, 「1910년대 신문의 역할과 근대 소설의 정착 과정」, 『현대문학의 연구』 25, 2005, 278쪽)라고 하더라도 신문소설로서 신문이 표방하는 담론에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35) 김준형, 「근대 글쓰기의 변모와 구활자본 고전소설」, 『고전과 해석』 창간호(2006), 73쪽.

〈김씨열행록〉에서는 갑준의 생모인 연씨의 현모양처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킨다.

연씨 부인과 부〃지락이 지극하고 효봉구고하기를 힘쓰더니 연씨 홀런 틈기 잇서 십삭만에 일기 옥동을 칭한 즉 부모의 질거움과 기증영화를 엿지 다 니르리오 상하너의 가 일심으로 공략하니 즈연 집안에 화기가 익〃 하야 향당 스름이 열복지 아니리 업더라³⁶⁾

또한 장공의 제례과정 중에 연부인의 모습을 서술하면서 “계천니 연부인이 아니면 좌우수족을 용납지 못”³⁷⁾ 한다고 서술한다. 이는 〈김씨열행록〉에만 나타나는 내용으로 〈조생원전〉과 〈구의산〉에는 부부금슬이나 전처의 품성에 대한 서술 없이 홀연 득병하여 사망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김씨열행록〉의 이러한 내용은 연씨의 득병과 사망에 대한 비극성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후처인 유씨, 화씨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한 악인과 선인의 대립과 극단적인 악행으로 인한 선인의 고난과 불행 그리고 행복한 결말 등은 독자들의 흥미와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김씨열행록〉이 〈조생원전〉과 〈구의산〉에 비해 갈등이 중첩되고 흥미 위주의 사건을 확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활자본 소설이 보여주는 통속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어떤 매체보다 시장의 지배를 받는 활자본은 이 시기 대중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이 시기 활자본 소설이 다른 출판 형태의 작품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작품의 서사 구조를 차용하고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개입되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 작품이 형성되거나 변이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특정 작품의 형성과 변이에 기여하는 주된 요인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김씨열행록〉의 형성에는 중첩된 가정비극과 이에 대한 여성의 관심 등에서 개화기의 신파극과 활동사진의 유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일제는 1910년 회사령을 제정하고 1912년 토지조사 사업을 벌임으로써

36) 〈김씨열행록〉, 앞의 책, 4쪽.

37) 〈김씨열행록〉, 위의 책, 4쪽.

조선의 토지 약탈과 상품시장 형성을 꾀한다. 즉, 1910년대는 식민지 통치 권력을 지렛대로 하여 한국 사회는 일본 자본의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도록 재편성하고 식민지 지배를 위한 총독부 권력의 경제적 기초로서의 축적을 이룩하는 시기이다.³⁸⁾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노동자 수의 증가를 가져왔고 노동과 여가의 분리로 여가 활동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오락기관이 성행하게 된다.

신파극은 개화기 문화 전반을 대표하는 대중적 문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1910년대에는 많은 신파극이 공연되었다.³⁹⁾ 가정 비극을 주 소재로 하는 신파극은 대체로 악인의 모해에 의한 선인의 고난과 극복을 선명하게 부각하는 멜로드라마적인 전개방식을 채용한다. 이 과정에서 극적 긴장감을 위한 극단적 대립구도의 설정이나 상황의 과장, 감정의 과잉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⁴⁰⁾ 그리고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기 위해 장면이 화려한 것, 배우가 보여주는 오버연기가 많은 것, 요염한 것, 잔혹한 것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이 결과 신파극은 원작자의 정신과 예술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색되면서 비속화되어버린다.⁴¹⁾ 당시 공연된 신파극이 통속화·저질화 평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상업성을 바탕으로 선정주의와 감상주의를 강조하는 신파극의 유행은 시대적 담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락기관의 다른 한 축인 활동사진은 1903년 경에 처음 도입된 이후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1910년대에는 이에 대한 사회적 담론들이 신문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할리우드 영화의 도입으로 인해 상영편수도 급격하게 증가했다.⁴²⁾

〈김씨열행록〉이 〈구의산〉보다 늦은 시기에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산〉에 나타났던 합리성과 사실성에 대한 경사가 소거되고 선인이 겪는 극단적인 고난과 시련 그리고 이의 해결을 감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당시 유행하던 신파극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각적 매체라는 차원에서 소설은 신파극과 활동사진에

38) 박현채, 「해방 전후 민족 경제의 성격」, 『한국사회연구 1』(한길사, 1983), 372쪽.

39) 유민영, 『한국 현대희곡사』(홍성사, 1982), 38쪽.

40) 김석봉, 『신소설의 대중성 연구』(역락, 2005), 211쪽.

41) 오화순, 「한·일 신파극 연구: 가정비극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8-14쪽 참조.

42) 한영현, 『해방기 한국 영화의 형성과 전개 양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8-20쪽 참조.

비해 역동성과 현장성에서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시각적 자극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활자본 소설로서 〈김씨열행록〉은 법적 절차 없이 범죄자를 처벌한 후 집을 불태우고 장시랑이 출가한다거나 모함과 독살, 고부 갈등 등 자극적 설정으로 다른 매체들과 경쟁하게 된 것이다. 상업적 목적을 위해 오락성을 중시했던 활자본 소설로서 〈김씨열행록〉은 〈조생원전〉과 〈구의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삽화들을 삽입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본다. 상업적 목적을 위해 오락성을 중시했던 활자본 소설로서 〈김씨열행록〉은 다양한 오락물의 유행과 이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는 1910년대 이후 많은 신문을 통해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이야기가 기사화되고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⁴³⁾ 이 중에는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신파적이고 통속적으로 기사화되는 경우도 많았고 지면을 할애하여 이러한 사건들을 신기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엽기적인 사건의 확장과 자극적 설정은 사건의 사실을 중시하는 신문보다는 활자본 소설에서 더 유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김씨열행록〉이 초판 발행 당시부터 콩쥐팥쥐 이야기를 소설화한 〈대서두서〉와 합철되었다는 정황은 작품이 가진 자극적 설정의 원인을 보여준다. 계모 이야기가 가진 흥미, 살인, 환생, 그리고 결말이 가진 엽기적인 내용까지 콩쥐팥쥐 이야기의 소설화로서 〈대서두서〉는 이 시기 활자본 소설이 지향하는 상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김씨열행록〉이 이러한 내용의 〈대서두서〉에 지속적으로 합철되어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오락성은 〈조생원전〉이나 〈구의산〉과 다른 〈김씨열행록〉 출현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김씨열행록〉의 또 다른 변이 요소로는 여성 독자들을 의식한 상업성을 들 수 있다.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씨열행록〉에서는 며느리 김씨와 계모들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며 시비 옥매의 역할도 나타난다. 옥매는 김씨가 범인을 밝히는 과정에도 일조하고 있으며 표1의 ⑮와 같이 김씨를 모함하는 화씨를 독살하려고 하는데 이는 김씨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독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김씨열행록〉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43)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다음 두 편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김동식, 앞의 논문(2002), 47-74쪽; 전봉관, 『경성기담』(살림, 2006).

한 갈등과 이의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역할과 행위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고소설은 1910년대 활자본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여 그 양이 신소설을 압도하면서 활발하게 유통되었는데 주 독자층은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여성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 조선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엇이나 하면 춘향전(春香傳)이나 심청전(沈淸傳)이라고 한다. 이 춘향전과 심청전의 애독자는 만히 중류이상 가명부인이다.⁴⁴⁾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설 창작 시 독자들의 정황을 고려하여 여성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쓸 것을 권유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 것으로 볼 때 여성의 취향은 작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씨열행록〉이 여성의 활약에 초점을 맞추어 서사 구조를 확장한 것은 부녀자의 독서 비중이 활자본 고소설 수용층으로는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김씨열행록〉은 여성들에게 인기 있던 〈조생원전〉의 전처 아들 살해라는 자극적인 사건과 함께 모함과 독살 등이 등장하는 고부 갈등을 부가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면서도 〈조생원전〉이 보여주는 현몽이나 우연한 발견 등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이끌어가지 않는다. 살인 사건의 해결과정에서는 〈구의산〉에 나타난 추리 기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김씨열행록〉은 〈조생원전〉에 나타난 흥미소와 〈구의산〉에서 보인 근대소설 기법을 활용하면서 이를 선과 악의 극명한 대립과 갈등으로 재구성하여 상업성을 가질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씨열행록〉이 〈조생원전〉이나 〈구의산〉에 비해 사건이 중첩되고 확장되는 것은 활자본 소설로서의 상업성과 오락성에 기인한다. 즉, 〈김씨열행록〉은 오락기관이 성행하던 당시의

44) 「H.K生, 가명과 구소설」, 《동아일보》, 1929년 4월 2일자.

45) 사실 1920년대 초까지 전체 조선 인구의 90%가량이 문맹이었고 1930년대 한국 여성의 90-95%가 학교 교육과 무관했다. 하지만 활자본 소설의 독자 문제는 해독력이 없는 이들이 즐기는 방식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청독의 방법이 음독으로 변화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청독은 독서 대중의 일반적인 형태였기 때문이다. 1930-1940년 대에도 청독 형식으로 구활자본을 향유하였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김준형, 앞의 논문, 75-76쪽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는 〈김씨열행록〉의 여성 독자 문제에도 적용 가능한 논의라고 본다.

문화 향유 양상과 여기에서 파생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변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매체는 그 매체가 출현한 시대적 담론을 표상한다. 필사본-방각본-구활자본으로 이행하는 매체의 변화는 정보 양식과 의사소통 수단의 변화를 초래했고 의사소통 양식의 변화는 공동체의 담론의 틀을 바꾸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향한 새로운 의사소통 양식을 만들어냈다.⁴⁶⁾ 소설이 시대상을 담아낸다는 점으로 볼 때 개화기 이후 출판 형태의 변화는 소설 변이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로써 유사한 서사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이것이 전대 소설을 모본으로 삼아 재창작한 경우에도 매체가 다르다는 사실은 각 매체가 표방하는 담론이 작품 속에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모티프의 서사 전개는 〈조생원전〉, 〈구의산〉, 〈김씨열행록〉에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사건 해결의 주체와 해결 방법은 작품마다 차이가 있다. 세 작품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작품이 존재하는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매체를 통해 세 작품이 가진 모티프가 활용된 결과 각각의 작품으로 변이되어 나타난 것이다.

〈조생원전〉이 필사본이며 가사체인 것은 조선 후기 소설 향유의 일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 시기 소설은 공동체적 독서물의 성격을 띤 것이 많은데 이러한 독서 형태는 봉건사회라는 시대성과 함께 정황 설정과 해결 방안 등에 관념성·환상성·초현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담론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인쇄술이 발전하고 여러 매체가 등장하면서 봉건시대의 소설 향유 방식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매체의 변화와 발전은 정보 전달 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의사소통 체계와도 관련된다. 특히 인쇄를 기반으로 하는 신문, 잡지, 도서 매체는 당대의 담론을

46) 김동식, 앞의 논문(1999), 21쪽 참조.

형성, 수용 재생산하면서 공동체 담론의 틀을 바꾼다⁴⁷⁾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본다면 〈구의산〉, 〈김씨열행록〉은 각각의 매체가 표방하는 시대적 담론을 반영하여 〈조생원전〉이 보여준 이야기 방식과는 다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신문소설은 작품이 게재되는 신문사나 신문의 입장과 논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⁴⁸⁾는 점에서 〈구의산〉은 《매일신보》가 담지하고 있는 식민지배 담론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신문이라는 매체가 보여주는 근대적 합리성과 사실성을 기반으로 〈조생원전〉에 나타난 모티프를 이에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변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활자본 소설은 상품성을 특징으로 한다. 활자본 소설은 이러한 상품성으로 인해 대중적인 것과 오락성을 가진 작품을 양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 유행하던 신파극이 표방한 통속적 감상주의나 활동사진이 보여주는 시각적인 자극에 영향을 받은 〈김씨열행록〉은 활자본이 가진 성격을 잘 반영한 작품이라고 본다.

이에 더해 〈조생원전〉, 〈구의산〉, 〈김씨열행록〉처럼 동일한 이야기가 시대와 매체를 달리하여 다른 제목으로 향유될 수 있었던 것은 계모 이야기가 가진 시대를 초월한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 조혼 관습에 따른 조기 출산과 이로 인한 득병, 죽음의 문제가 조선시대 여성들의 당면 문제로 〈조생원전〉의 인기를 뒷받침하는 요소였다면 유학생 지식인들의 이혼으로 인한 계모의 생성은 개화기 여성들의 관심사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계모와 전실 자식의 문제는 시대를 달리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인 것이다. 또한 목 잘린 시체, 살인에 대한 말초적 호기심은 신문 기사로서의 도구이면서 활자본 소설의 상업성을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신소설이 전 시대 소설의 극복을 표방하면서 등장하였고 활자본 소설은 고소설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이전의 고소설과는 차별화된 내용으로 대중성을 획득하고자 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였다고는 해도 독서 대중들의 취향은 이전부터 존재한 고소설의 취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의산〉, 〈김씨열행록〉의 등장은 기존의 문화 경험에서 익숙한 것들이 취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매체가 가진

47) 남석순, 『근대소설의 형성과 출판의 수용미학』(박이정, 2008), 67쪽.

48) 함태영, 앞의 논문, 9쪽.

특성과 이에 담긴 담론이 교합되어 각각의 작품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시대의 담론과 매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구의산>과 <김씨열행록>을 통해 고소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매체의 특성과 함께 시대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변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근대와 근대성, 단절과 계승의 논의에서 <조생원전>, <구의산>, <김씨열행록>은 고소설 전승의 양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문학사가 단절이 아니라 혼재와 변이를 통해 서로 경쟁하였음을 보여주는 증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황을 통해 같은 표제를 가진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소설은 도태하거나 사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모습을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신문소설 〈구의산〉, 《매일신보》, 1911년 6월 22-29일자.

필사본 〈조생원전〉, 박태상, 『국문학연습-조선조가정소설 연구』, 1991, 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활자본 〈김씨열행록〉, 동국대학교한국학연구소, 『활자본고전소설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76.

『구비문학대계』.

2. 논저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권순궁, 『활자본 고소설의 편폭과 지향』. 보고서, 2000.

김동식, 『한국의 근대적 문학 개념의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_____, 「신소설에 등장하는 죽음의 양상-소문과 꿈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문학연구』 11, 2002, 47-74쪽.

김명식, 「〈김씨열행록〉과 〈구의산〉-고전소설 개작 양상」. 『한국문학연구』 8, 1985, 207-225쪽.

김석봉, 「『구의산』 서사 구조의 성층화 양상 연구」. 『대중서사연구』 10, 2003, 91-117쪽.

_____, 『신소설의 대중성 연구』. 역락, 2005.

김성철, 『활자본 고소설의 존재 양태와 창작 방식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김영권, 「‘첫날밤 신랑 모해 설화’의 소설화 연구; 〈조생원전〉, 〈김씨열행록〉, 〈사명당전〉, 〈구의산〉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영민, 「1910년대 신문의 역할과 근대 소설의 정착 과정」. 『현대문학의 연구』 25, 2005, 261-300쪽.

김준형, 「근대 글쓰기의 변모와 구활자본 고전소설」. 『고전과 해석』 창간호, 2006, 57-103쪽.

남석순, 『근대소설의 형성과 출판의 수용미학』. 박이정, 2008.

대중문학연구회,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6, 1-343쪽.

매체철학연구회, 『매체철학의 이해』. 인간사랑, 2005.

맹택영, 「한글 필사본 고소설 생산계층의 소설관과 기능-평문과 기사문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집』 20, 2000, 137-158쪽.

박현채, 「해방 전후 민족 경제의 성격」. 『한국사회연구』 1, 한길사, 1983.

- 서민석, 「조생원전(필사본)의 문학사적 성격」. 『국어국문학연구』 19, 1991, 85-113쪽.
- 서혜은, 「이해조 <구의산>의 <조생원전> 개작 양상」. 『어문학』 113, 2011a, 327-357쪽.
- _____, 「<조생원전>의 이본 계열과 여성 독자층의 향유 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2011b, 133-162쪽.
- 성형석,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형 설화의 소설화 양상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송민호, 『한국개화기소설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5.
- 안미을, 「<조생원전>의 후대적 변모-〈김씨열행록〉, 〈구의산〉과의 비교」.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오화순, 「한·일 신파극 연구: 가정비극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유민영, 『한국 현대 희곡사』. 흥성사, 1982.
- 이윤경,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형 설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16, 2003, 279-307쪽.
- _____, 『계모형 고소설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정은, 「〈김씨열행록〉 연구」. 『한민족어문학』 15, 1988, 401-423쪽.
- 이희정,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매일신보』』. 소명출판, 2008.
- 전봉관, 『경성기담』. 살림, 2006.
- 전용문, 「<조생원전>과 <김씨열행록>의 상관성」. 『어문연구』 51, 2006, 411-439쪽.
- 정장진, 「계모형 설화의 전승 및 서사 양식과 의미」. 『외대어문논집』 18, 2003, 399-423쪽.
-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 _____,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94.
- _____,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 지식산업사, 2002.
-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 목록』. 집문당, 1999.
- 최기숙, 「전통과 근대의 부정교합, 표류하는 서사의 근대성」. 『고소설연구』 37, 2014, 49-89쪽.
- 최운식, 「〈金氏烈行錄〉 研究」. 『국제어문』 11, 1990, 47-76쪽.
- 한영현, 『해방기 한국 영화의 형성과 전개 양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한유진, 「'첫날밤 목 잘린 신랑과 누명 쓴 신부' 유형 설화에 나타난 갈등 구조와 전승 체계」. 『구비문학연구』 37, 2013, 147-178쪽.
- 함태영, 『1910년대 『매일신보』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고소설과 신소설이 공존하던 시대에 고소설이 어떠한 존재 양상을 보이는가에 주목하였다. 조선 후기부터 1920년대를 거치면서 고소설이 어떠한 양상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존재하고 있는지, 즉 고소설의 변화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근거로 이 연구는 동일한 모티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사 구조와 제명, 매체를 각각 달리하는 〈조생원전〉, 〈구의산〉, 〈김씨열행록〉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조생원전〉, 〈구의산〉, 〈김씨열행록〉 세 작품은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모티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각각 존재하는 매체가 다르다. 〈조생원전〉은 작가·연대 미상의 필사본이며 〈구의산〉은 1911년에 《매일신보》에 연재된 신문소설이고 〈김씨열행록〉은 〈대서두서〉와 합본되어 1928년 태화서관에서 간행한 활자본이다. 즉, 같은 모티프가 각각의 매체에 따라 제명과 내용이 다른 작품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조생원전〉이 가사체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필사본인 것은 조선 후기 소설 향유의 일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공동체적 독서를 위한 필사본 고소설은 정황 설정과 해결 방안 등에 관념성·환상성·초현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담론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구의산〉이 〈조생원전〉과 다른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서두이다. 〈조생원전〉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구의산〉은 이동집이 오복을 귀애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서판서가 이동집을 후처로 맞게 되는 과정은 시간을 역행하여 회상으로 처리함으로써 사건 진행의 현재성을 중시하는 서술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동집과 칠성의 성격이 급변하고 있어 인물 설정에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실성의 확보를 위해 〈구의산〉은 〈조생원전〉이 남편의 죽음을 현몽을 통해 확인하거나 살인자를 직접 처단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동집의 처분에 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근대적 사실주의의 한 단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구의산〉에 근대성과 개화라는 신문소설적 담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생원전〉과 〈구의산〉이 ‘신방의 아들을 계모가 살해하다’와 ‘가장이

길을 떠나고 가족이 찾아와 상봉한다는 내용이 중심이 된 데 비해 <김씨열행록>은 여기에 가장이 돌아온 후 며느리가 계모에 의해 다시 고난을 겪는 부분이 부가되어 있다. <김씨열행록>의 서사 구조가 확대되면서 등장인물 중 여성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김씨열행록>에서의 서사 구조의 확대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갈등과 그 해결과정이 부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역할과 행위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씨열행록>의 서사 구조가 <조생원전>이나 <구의산>에 비해 장황해진 것은 문학성을 폄하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구활자본 고소설이 상업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고 단순한 오락성을 내포한 흥미 위주의 형태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과 관련이 있다. 또한 활자본 고소설과 경쟁하던 신소설과 사실주의적 근대소설은 <김씨열행록>이 가진 사실적이고 잔인한 상황 묘사와 이의 중첩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신파극의 선정성과 통속성은 당시 유행하는 문화 담론으로 기능하면서 <김씨열행록>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본다.

신문소설과 활자본 소설로서의 <구의산>, <김씨열행록>은 매체가 등장한 시대적 담론, 즉 근대의 개인화와 일상화 및 과학화를 반영하면서 <조생원전>이 보여준 스토리텔링 방식과는 다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매체가 변화하고 고소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매체의 특성과 함께 시대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변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투고일 2016. 3. 9.

심사일 2016. 4. 20.

게재 확정일 2016. 6. 8.

주제어(keyword) <조생원전>(〈Cho-Saeng-Won-Jeon〉), <구의산>(〈Gu-ui-San〉), <김씨열행록>(〈Kim-Ssi-Yeol-Haeng-Rog〉),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the stepmother who killed the child by the husband's former wife in bridal room), 매체(print media), 변이(variative)

Abstracts

A Study on the Variative Patterns of Korean Classical Novel by the Modes of Print Media

Shin, Hee-kyung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existence patterns of classical novel in the times of coexistence classical novel and modern novel. For this, the objects of research are the 〈Cho-Saeng-Won-Jeon〉, 〈Gu-Ui-San〉, and 〈Kim-Ssi-Yeol-Haeng-Rog〉. These are different to the structure of narration, a title and a print media in spite of the same motive. In other words, although the three novels have a common motive of 'the stepmother who killed the child by the husband's former wife in bridal room,' but these different to the print media each other.

〈Cho-Saeng-Won-Jeon〉 is a manuscript of unknown authorship and era. But 〈Gu-Ui-San〉 is a serial story that was published in a series in Mai-il Shinbo on 1911 and 〈Kim-Ssi-Yeol-Haeng-Rog〉 is a printed book that was published by Deachangsewon in 1919.

〈Cho-Saeng-Won-Jeon〉, which is a manuscript with the strong tendency of Gasa-Style, has indicated the one side of enjoyment in late Joseon Era. The manuscript classical novels for communal reading are the characteristic of the ideality, fantasy, surrealism about the setting-up a situation and a solution plan.

〈Gu-Ui-San〉 appeared the stereoscopic figure of characters and have got a description form to put emphasis on newness of the course of events. These features have to do with newspaper's role do the realization of human form as modern individual. Thus this study evaluate that 〈Gu-Ui-San〉 reflected the newspaper novel discourse of the enlightenment including a modernity and a civilization. 〈Kim-Ssi-Yeol-Haeng-Rog〉 has feature that is enhanced the role of female with the expansion of description structure. 〈Kim-Ssi-Yeol-Haeng-Rog〉, what has got a overlapped description structure and a cruel situation description, have relevance to the commercial viability of a printed classical novels. Furthermore, 〈Kim-Ssi-Yeol-Haeng-Rog〉 is influenced by the sexuality and the popular nature of soap opera.

The 〈Gu-Ui-San〉 as a serial story and the 〈Kim-Ssi-Yeol-Haeng-Rog〉 as a printed book reflects a historic and architectural discourse as like modern individualization, generalization and scientification. But 〈Cho-Saeng-Won-Jeon〉 has not reflected it.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 that classical novel is not disappeared but changed into the structure of narration, a title and a print media depending on the needs of the times and the changed character of media.

